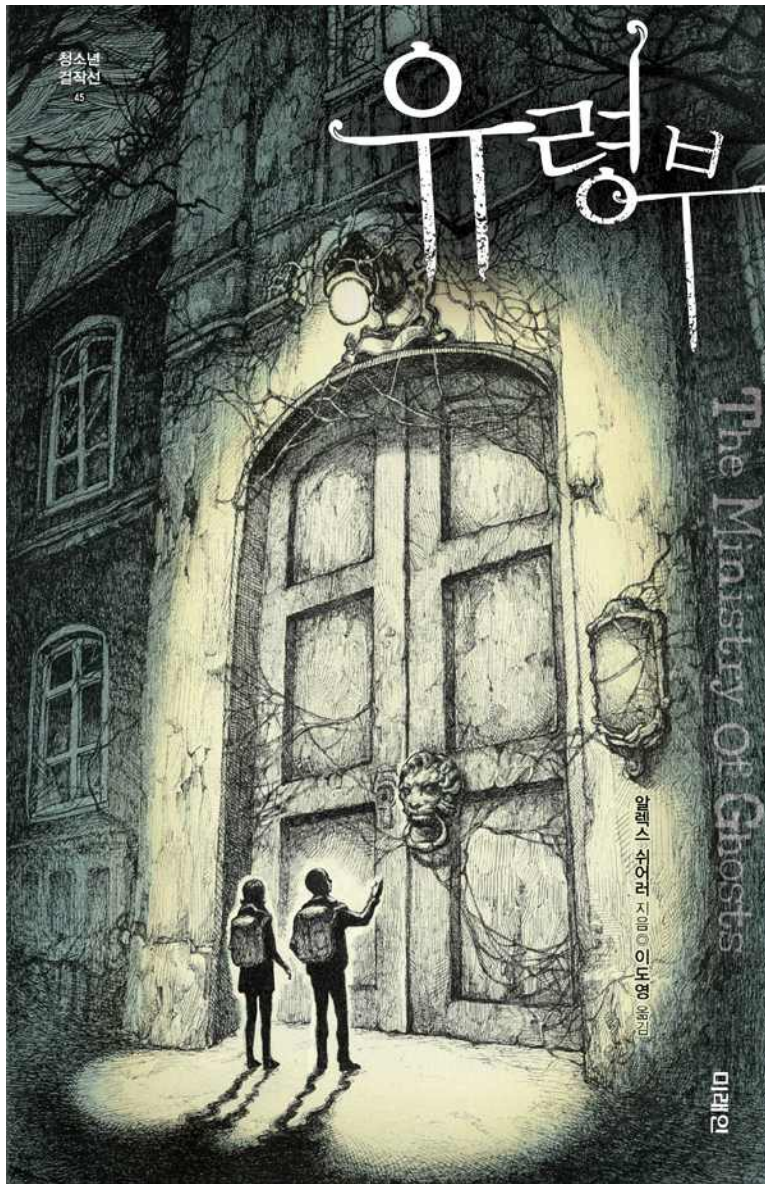


| 보도자료 |

미래인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4-41 미진빌딩 2층 (121-842) | <http://www.miraeinbooks.com>  
문의: 황인석 부장 | 전화 562-1800(내선: 140), 010-7276-8993 | 이메일 wildmuzi@miraemnb.com

미래인 청소년 걸작선 45

# 유령부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이도영 옮김

신국판변형(140×215) | 284쪽 | 값 9,800원

ISBN 978-89-8394-789-5 03840

발행일: 2015년 12월 15일 | 분야 청소년

##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3개월뿐! 과연 유령을 찾아낼 수 있을까?

이동청소년모험소설의 왕, 알렉스 쉬어러의 코믹 호러

“아동·청소년 모험소설의 왕”으로 불리며 한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알렉스 쉬어러가 이번에는 코믹 호러에 도전했다! 정부의 강력한 예산 절감 정책에 따라 폐쇄 위기에 처하게 된 유령부(幽靈部)가 시한부 통보를 받고 유령을 찾아내기 위해 좌충우돌하는 이야기를 때론 익살스럽게, 때론 오싹하게 그려낸 청소년소설. 유령이라는 비현실적 소재를 현실감 있게 풀어낸 작가의 치밀한 묘사력에 스릴러 영화를 연상케 하는 역대급 반전까지, 모험소설이 갖춰야 할 미덕을 빼어나게 성취해냈다.

런던 변두리의 한적한 브리카브락 거리에 위치한 유령부는 1792년 설립된 유서 깊은 정부기관이지만, 이제 그곳에 있다는 것도 아는 이가 거의 없는, 국민 세금만 축내는 줌도둑 같은 조직으로 전락한 지 오래였다. 이제 직원도 달랑 사람 4명에 고양이 한 마리뿐. 그러나 그마저도 정부의 강력한 예산 절감 정책에 따라 박살날 위기에 처한다. 3개월 안에 유령을 찾아내지 못하면 유령부를 폐쇄하고 직원들을 강제퇴직 또는 전보 발령시키겠다는 것.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령부 사람들은 대책을 논하던 중 아이들이 유령을 볼 수 있는 건 물론, 유령의 관심을 끌고 현혹시키는데 유리하다는 이론에 따라 아이들을 유령사냥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기로 한다.

얼마 후 같은 학교, 같은 반 친구인 코들리와 팀은 학교 가는 길에 있는 브리카브락 거리에서 이상한 구인공고문을 발견한다. ‘토요일에 근무 가능한 남녀학생 구함.’ 유령부라는 곳이 대체 뭘 하는 곳인지 몰랐지만, 모험심이 강한 테다 용돈도 필요했던 그들은 무턱대고 유령부 문을 두들긴다. 그리하여 아르바이트 유령사냥꾼으로 채용된 그들은 유령부 도서관에 소장된 유령 관련 서적을 탐독하며 지식을 쌓고 드디어 실전에 나선다.

그러나 200년이 넘도록 정부기관에서도 찾지 못한 유령을 그런 애송이들이 쉽게 찾아낼 리는 만무하다. 계속되는 실패에 코들리와 팀은 의욕을 잃고 지쳐만 가고, 그사이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최종 시한이 코앞에 다가온다. 그런데, 그런데, 정작 유령은 그들 가까운 곳에 있었으나….

유령은 그 존재 유무에 대한 오랜 논란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오싹한 공포의 대상이자 풍요로운 상상력의 원천이기도 하다. 작가가 소설 속에서 말하듯, “유령이란 그저, 믿기도 잘 믿고 속기도 잘 속는 사람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마치 입담 좋은 이야기꾼이 한 올 한 올 지어낸, 불가능하고 있을 법하지도 않은, 형형색색 휘황찬란한 마법의 옷감 처럼 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령만큼 우리의 호기심과 모험심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도 없다는 것이다. 죽었지만 살아 있는 존재인 유령은 나아가 삶과 죽음의 경계, 사후 세계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토록 유령 이야기에 열광하는 것은 아마도 그 때문이리라.

19세기에나 있었을 법한 고색창연한 유령부 건물을 배경으로 모험심 강한 아르바이트 유령사냥꾼 팀과 코들리, 일자리를 잃을까 봐 허둥지둥하는 유령부 직원들, 피도 눈물도 없는 저승사자 비스톤 감독관 사이에 벌어지는 유령 소동은 그 자체로 흥미 만점의 모험 판타지인 동시에, 아이들에게 삶과 죽음의 의미를 일깨우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 ★ 책 엿보기

유령부(幽靈部)라는 곳은 발견하기도 어렵고 세상에 알려진 것도 없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 장소들 중 한 곳이었는데, 그럼에도 발견했다는 건 순전히 소 뒷걸음치다 쥐 잡은 격이었다.

만약 작정하고 그곳을 찾으려 하거나, 이쪽이다 생각하고 살살이 수색한다면, 발견할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엉뚱하게도 애먼 곳을 찾아 헤맨다면, 의외의 결과로 느닷없이 발견할 수도 있는 곳이었다.

그 상황이 되면, 경외감 또는 당혹감 가득한 눈으로 뽀얗게 먼지가 내려앉고 색은 바랜 대로 바랜 현관을 쳐다보다가, 문득 이게 장난인지 속임수인지 모르겠는 느낌이 들어서, 어쩌면 농락당하는 기분마저 들지도 모르겠다.

그러다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마치 그 누구의 손도 타지 않은 과거를 간직한 진공 상태라도 되는 양, 긴 세월 동안 바람 한 점 불지 않고 먼지떨이 한 번 휘두른 적 없는 것처럼 건물 안 구석구석마다 거미줄이 잔뜩 쳐진 것을 보게 된다.

유령부 건물은 여름엔 낮에도 마치 냉장고처럼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겨울엔 차갑고 혹독한 바람이 부는 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냉기를 막겠다고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외투 단추를 꼭꼭 채워도 온기를 느끼기 어려운 곳이었다. 그럼에도...

그곳에는 주변을 얼정거리며 그 멋스러움을 면밀히 뜯어보게끔 시선을 잡아끄는 뭔가가 있었다. 건물의 외관 때문인지 몰라도, 먼지가 수북이 앉은 차가운 유리창일지라도 개의치 않고 코를 처박고 기어이 안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다. (본문 12-13쪽)

비스턴 씨는 가장 최근의 보고서를 집어 들었다. 최근 것인데도 보고서에 찍은 포도즙 같은 냄새가 잔뜩 배어 있는 것 같았다.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간보고서는 달랑 4건뿐이라니. 저 밑에 천 개쯤은 더 있어야 말이 되겠군.”

“그렇습니다. 쥐나 벌레들이 잡아 먹었을지도 모르지만요.”

“보나마나 똑같은 말을 되풀이할 게 뻔하지 않소? 조사는 ‘진행 중’에 있고, 증거를 ‘찾는 중’이며, 결론을 내기 위해 ‘다양한 각도로 검토 중’이다. 그리고 ‘결정적 단서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지만 부단히 노력 중’이다. 유령부인지 뭔지 하는 곳에서 기껏 한다는 게 뭔지 압니까, 피브 부인?”

“뭘데요, 감독관님?”

“눈 가리고 아웅. 그게 바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오. 잔머리 굴리고 핍수나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편안한 일자리를 만들어놓고는 나중에 은퇴하면 쓸쓸한 연금 받을 요량으로 뜯구름이나 쫓으며 일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지.”

“그보단 유령을 쫓고 있는...”

“유령을 쫓는 거나 뜯구름을 쫓는 거나, 그게 그거지. 이 희한한 사람들은 납세자들을 기만하고 있으니, 이젠 그만 끝낼 때가 됐소. 200년을 공들여 조사했는데도 유령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다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딱 한 가지뿐이오.”

“그게 뭔가요?”

“가짜라는 거지. 유령은 없다. 유령인지 뭔지는 순전히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그중엔...”

“알아요, 알아요. 유령을 직접 목격했다고 맹세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비행접시가 나는 걸 봤네, 외계인한테 납치됐었네 하며 맹세까지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소. 하지만, 이 말만은 분명히 합시다. 무위도식하며 시간 낭비나 하는 이 사람들, 유령부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거요. 내가 최후통첩을 보낸 후 폐쇄시킬 작정이니까.” (본문 26-27쪽)

“영감님.” 롤리 양이 말했다. “저는 우리 유령부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방법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카퍼스톤 영감은 반달 모양 안경 너머로 그녀를 힐끗 쳐다봤다. 롤리 양 말이 사실일까?

“그게 뭐가? 롤리 양.”

“그라임스와 내털리의 <유령사냥 지침서>에 대해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유령사냥의 바이블이라는 책 말인가? 우린 이미 그 책에 대해 알 만큼 알고 있지 않은가. 우리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엔 입문서와도 같은 책인데. 나침반과 별자리와도 같은 책이지. 그래, 그게 어떻단 말인가, 롤리 양?”

“흔히 육감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유령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중략).....

“바로, 아이들입니다!” 롤리 양이 말했다. “그라임스와 내털리의 주장에 의하면, 아이들은 어른 들에겐 없는 예민한 감각이 있다고 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감각을 잃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은 유령을 볼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유령의 관심을 끌고 현혹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유령을 사람들 가까이 오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일종의... 미끼가 되는 거죠.”

카퍼스톤 영감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 그는 안경을 벗더니 먼지 한 점 없는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안경을 닦았다.

“이 얘기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사실이네, 롤리 양. 난 이미 알고 있는 얘기지. 하지만 유령 부는 오래전부터, 유령을 유인하기 위해 아이들을 이용하는 건 아이들을 트라우마와 위협에 노출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규정한 바가 있네.”

.....(중략).....

“제 생각엔 밀저야 본전입니다, 영감님.” 롤리 양이 말했다. “개인적으로 유령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제 등 뒤에서 그것들이 느껴졌던 경험이 수없이 많거든요. 저를 스쳐 지나간 적도 있고, 제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빠져나가는 걸 느낀 적도 있어요. 반대로 제가 나가면 들어오기도 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기빙스 군이 흥분하며 말했다. “저도 똑같이 느낀 적 있어요. 항상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손에 잡히진 않죠. 어쨌든, 뭔가를 잡으려면 우선 미끼를 달아 댈을 놓아야 합니다. 그라임스와 내털리의 <유령사냥 지침서>에 모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유령을 잡았대요?” 스켈트 부인이 물었다. “내털리와 그라임스라는 사람 말예요.”

“두 사람은,” 카퍼스톤 영감이 말했다. “자신들의 이론과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도 못한 채 의문점만 남기고 사망했소.”

“아... 의문사요?” 스켈트 부인이 말했다. “들은 적 있어요.”

카퍼스톤 영감은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잘 알겠소. 롤리 양의 제안이 우리에게엔 유일한 선택이자 희망인 것 같소. 한번 시도해봅시다. 유령부가 문을 닫게 놔둘 순 없으니. 200년이 넘는 우리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끝장나는 걸 두고 볼 수만은 없소. 유령부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모두들 같은 생각입니까?”

당연히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다.

“잘 알겠소. 롤리 양과 기빙스 군,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적합한 광고안을 만들어주겠소? 그러면 내 결재를 받는 즉시 창문에 광고를 붙이도록 하겠소.”

(본문 74-78쪽)

## ★ 지은이 및 옮긴이 소개



### 알렉스 쉬어러 (Alex Shearer)

영국 스코틀랜드의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대학에서 경영학과 광고를 전공했다. 트럭 기사, 백과사전 외판원, 가구 운반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서른 가지 이상의 직업을 경험했지만, 스물아홉 살 때 쓴 TV 시나리오가 인기를 얻으면서 창작 활동에 전념하게 되었다.

영똥하고 재기발랄한 상상력에 교훈적인 메시지가 적절히 어우러진 그의 소설은 대표작 『푸른 하늘 저편』을 비롯해 상당수가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으며, TV 드라마와 만화영화 등으로도 제작되어 큰 인기를 모았다. 『초콜릿 레블루션』은 BBC에서 TV 미니시리즈로 제작하여 여러 나라에 수출되었고, 그해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동드라마 부문 각본상을 수상했다. 또 일본에서는 만화영화(한국 개봉명: 초코초코 대작전)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두근두근 백화점』 역시 BBC에서 크리스마스 특집 드라마로 제작, 방영되었다.

“아동·청소년 모험소설의 왕”이라 불리지만, 정작 작가는 그런 애칭을 싫어한다고 한다. 왜냐고? 아이와 어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소설을 쓰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한국에서도 그의 작품은 나날이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푸른 하늘 저편』이 책따세 추천도서, 『초콜릿 레블루션』이 아침독서·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추천도서, 『통조림을 열지 마시오』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두근두근 체인지』가 KBS 한국어능력시험 선정도서, 『두근두근 백화점』이 간행물윤리위원회 권장도서로 선정되는 등 각급 학교 및 단체에서 추천도서로 널리 읽히고 있다.

### 이도영 (옮긴이)

동국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컴퓨터 게임 개발 업무에 종사하다가, 영어에 남다른 매력을 느껴 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출판계에 종사하고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청소년소설 『트루먼 스쿨 악플 사건』 『불량엄마 납치사건』 『불량엄마 굴욕사건』 『피그보이』 등이 있다.

## ★ 차례

### 프롤로그

- 1장 브리카브락 거리
- 2장 1792년
- 3장 바쁜 척하기 기술
- 4장 불청객
- 5장 시한부 통보
- 6장 유령을 잡는 법
- 7장 아르바이트 남학생 구함
- 8장 여학생
- 9장 여성의 권리를 위하여
- 10장 또 다른 지원자
- 11장 누구를 뽑을까
- 12장 팀과 코들리
- 13장 유령사냥 지침서

- 14장 작전 시작
- 15장 좀비? 뱀파이어?
- 16장 언데드
- 17장 검은 옷을 입은 남자
- 18장 유령은 대체 어디에 있나
- 19장 미봉책
- 20장 유리병에 든 유령
- 21장 무시무시한 진실
- 22장 하나도 아니고 넷, 아니 다섯
- 23장 그들이 사는 법
- 24장 비스턴 씨의 마지막 방문
- 25장 산 자와 죽은 자